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복 우

목 차

I . 결산개요	1
1. 재무 현황	1
가. 자산·부채·자본 규모	1
나. 자산·부채·자본 구성 및 증감	3
2. 손익 현황	10
가. 수입 · 비용 규모	10
나. 수입 · 비용의 구성	12
다. 이익잉여금 처분(안)	14
II . 검토 의견	15
1. 전반적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15
2. (수입) 수신료 통합고지 재도입에 따른 면밀한 준비 필요	24
3. (수입)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수입 감소 대응 필요	28
4. (수입) 지속되는 콘텐츠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익 기반 개선 필요 ...	32
5. (비용)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36

6. 자본예산 집행실적 저조 문제	39
7.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 개선 필요	42

【참고자료】

1. 2023회계연도 KBS 결산승인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46
2. KBS 현황	66

I. 결산개요

1 재무 현황

가. 자산·부채·자본 규모

- 2024년 말 한국방송공사(KBS)의 자산은 1조 1,679억원, 부채는 5,299억 원, 자본은 6,380억 원임.

<KBS 재무상태(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증감률
자 산	자 산 합 계	11,679	12,784	-1,105	-8.6
	유동자산	2,256	3,011	-755	-25.1
	비유동자산	9,423	9,773	-350	-3.6
부 채 와 자 본	부 채 합 계	5,299	5,774	-475	-8.2
	유동부채	1,283	1,560	-277	-17.8
	비유동부채	4,016	4,214	-198	-4.7
	자 본 합 계	6,380	7,010	-630	-9.0
	자본금	2,062	2,062	-	-
	자본잉여금	-12	-12	-	-
	자본조정	-13	-1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6	141	105	74.5
	이익잉여금	4,097	4,832	-735	-15.2
	부채와 자본 합계	11,679	12,784	-1,105	-8.6

주: 자본금 2,062억 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

자료: KBS

- 최근 5년 간 재무상태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자산, 부채, 자본은 전반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자산, 부채, 자본 모두 감소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 부채는 5,299억원으로 2023년(5,774억원)보다 475억원 감소하였고, 2024년 말 기준 자본은 6,380억원으로 2023년(7,010억원)보다 630억원 감소하였으며,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1조 1,679억원으로 2023년 자산 1조 2,784억원 대비 1,105억원 감소하였음.

<재무상태 변동 추이표(2019~2024년)>

(단위: 억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전년 대비 증감	합계	전년 대비 증감
부채(A)	6,000	5,511	-489	5,773	262	6,290	517	5,774	-516	5,299	-475
자본(B)	6,890	7,216	326	7,768	552	7,662	-106	7,010	-652	6,380	-630
자산(A+B)	12,890	12,727	-163	13,541	814	13,952	411	12,784	-1,168	11,679	-1,105

자료: KBS

나. 자산·부채·자본 구성 및 증감

(1) 자산의 구성 및 증감

- 2024년도 말 기준 자산은 1조 1,679억원으로, 유동자산¹⁾ 2,256억원 (19.3%)과 비유동자산²⁾ 9,423억원(80.7%)으로 구성됨.

<자산의 구성비(2023·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		유 동 자 산			비 유 동 자 산					자산 합계 (A+B)
		당좌 자산	재고 자산	계(A)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계(B)	
2023년	금 액	2,935	76	3,011	3,942	5,287	26	518	9,773	12,784
	구성비	23.0	0.6	23.6	30.8	41.4	0.2	4.0	76.4	100.0
2024년	금 액	2,195	61	2,256	4,035	4,909	25	454	9,423	11,679
	구성비	18.8	0.5	19.3	34.6	42.0	0.2	3.9	80.7	100.0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740	-15	-755	93	-378	-1	-64	-350	-1,105
	증감율	-25.2	-19.7	-25.1	2.4	-7.1	-3.8	-12.4	-3.6	-8.6

1) 비교적 단기간(1년 이내)에 자금화(資金化)할 수 있는 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됨.

2) 원칙적으로 1년 내 자금화되지 않는 자산

- 유동자산은 매출채권 감소(671억원), 선급금 비용처리 (328억원) 등으로 755억원이 순감하였고,
비유동자산은 유·무형자산 감소(379억원) 등으로 350억원이 순감하였음.
- 이에 총자산은 전년 대비 1,105억원이 감소하였음.

<자산 주요 증감내역(2024년)>

구분	주요 증가 내역		주요 감소 내역		순증감
유동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63억원	-매출채권	671억원	-755억원
	-단기대여금	3억원	-선급금	328억원	
	-기타의 당좌자산	2억원	-재고자산	15억원	
			-미수금	3억원	
			-선급비용	3억원	
			-유동이연법인세자산	3억원	
	총 268억원 증가		총 1,023억원 감소		
비유동 자산	-지분법투자주식	146억원	-유·무형자산	379억원	-350억원
			-장기투자증권	39억원	
			-장기대여금	14억원	
			-기타 비유동자산	64억원	
	총 146억원 증가		총 496억원 감소		
계	414억원 증가		1,519억원 감소		-1,105억원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 유동자산은 성격에 따라 당좌자산³⁾, 재고자산⁴⁾으로 분류할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⁵⁾, 유형자산⁶⁾, 무형자산⁷⁾, 기타비유동자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이 중에서도 2024년도 KBS의 자산은 유형자산, 투자자산, 당좌자산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4년도 유형자산은 4,909억원으로, 자본 투자 축소 및 유형자산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2024년도 투자자산은 4,035억원으로 2018년 대비 659억원 증가하였는데, 2024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93억원 증가하였음.
- 2024년도 당좌자산은 2,195억원으로, 당기순손실 발생(735억원)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감소(671억원), 선급금 감소(328억원)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740억원 감소하였음.

3)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4) 유동자산 중에서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5)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 본래의 사업목적이 아닌 타기업을 지배, 통제하거나 유휴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는 자산

6)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 기계장치, 구축물처럼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 자산

7)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자산

<유형자산, 투자자산 및 당좌자산 추이(2018~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a)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증감 (b-a)
총자산	12,320	12,890	12,727	13,541	13,952	12,784	11,679	-641
- 유형 자산	5,631	5,507	5,332	5,245	5,483	5,287	4,909	-722
- 투자 자산	3,376	3,463	3,377	3,526	3,953	3,942	4,035	659
- 당좌 자산	2,646	3,050	3,132	4,044	3,830	2,935	2,195	-451

자료: KBS

- 참고로 투자자산의 하나인 지분법⁸⁾적용 투자주식 현황을 살펴보면, KBS가 투자한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등 자회사와 연합뉴스의 총장부금액은 전년 대비 146억원 증가한 3,371억원이고,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2024년 당기순손실은 1,405억원 발생하였음.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현황(2023·2024년) >

(단위: 억원)

회 사 명	지분율	2023년 말	2024년 말	증 감
KBS비즈니스	100.0%	204	220	16
KBS미디어	88.8%	1,041	1,102	61
KBS아트비전	100.0%	143	146	3
e-KBS	100.0%	1,261	1,321	60
연합뉴스	27.8%	438	449	11
KGCS문전사 ¹⁾	40.0%	52	50	-2
KBS시큐리티	100.0%	71	71	0
wavve Americas	15.2%	15	12	-3
콘텐츠웨이브	1.9%	0	0	0
합 계		3,225	3,371	146

주 1) KGCS는 KBS Global Contents Syndication의 약자로, KBS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의미함.

자료: KBS

8) 자회사(피투자회사)의 순손익을 보유지분만큼 모회사(투자회사)의 경영 실적에 반영하는 제도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요약 재무정보(2024년)>

(단위: 억 원)

회 사 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KBS비즈니스	324	97	585	16
KBS미디어	1,742	502	2,395	87
KBS아트비전	268	122	773	7
e-KBS	1,431	109	36	-31
연합뉴스	2,086	472	1,599	39
KGCS문전사 ¹⁾	125	0	0	9
KBS시큐리티	100	28	261	1
wavve Americas	272	193	984	-36
콘텐츠웨이브	1,762	2,767	3,313	-1,497
합 계	8,110	4,290	9,946	-1,405

주 1) KGSC는 KBS Global Contents Syndication의 약자로, KBS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의미함.

자료: KBS

(2) 부채·자본의 구성 및 증감

- 2024년도 부채는 5,299억원으로, 유동부채 1,283억원과 비유동부채 4,016억원으로 구성됨.
- 2024년도 자본은 6,380억원으로, 자본금 2,062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6억원, 이익잉여금 4,097억원 등으로 구성됨.
- 부채와 자본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4년에는 부채가 45.4%, 자본이 54.6%로서, 부채 비중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임.

<부채·자본의 구성비(2023·2024년)>

(단위: 억원, %)

구 분		부 채			자 본						합계 (A+B)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계(A)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	계(B)	
2023년	금 액	1,560	4,214	5,774	2,062	-12	-13	141	4,832	7,010	12,784
	구성비	12.2	33.0	45.2	16.1	-0.1	-0.1	1.1	37.8	54.8	100
2024년	금 액	1,283	4,016	5,299	2,062	-12	-13	246	4,097	6,380	11,679
	구성비	11.0	34.4	45.4	17.6	-0.1	-0.1	2.1	35.1	54.6	100
증감	금 액	-277	-198	-475	0	0	0	105	-735	-630	-1,105
	증감율	-17.8	-4.7	-8.2	0.0	0.0	0.0	74.5	-15.2	-9.0	-8.6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 부채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감소(108억원) 및 미지급금 감소(106억원) 등으로 277억원이 순감하였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감소(207억원) 등으로 198억원이 순감하였음.

<부채의 주요 증감내역(2024년)>

구분	주요 증가 내역	주요 감소 내역	순증감
유동 부채	- 선수금 1억원	- 매입채무 108억원 - 미지급금 106억원 - 미지급법인세 52억원 - 선수수익 8억원 - 예수금 4억원	-277억원
	총 1억원 증가	총 278억원 감소	
비유동 부채	- 퇴직보험예치금 7억원 - 국민연금전환금 1억원 - 기타의비유동부채 1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207억원	-198억원
	총 9억원 증가	총 207억원 감소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2 손익 현황

가. 수입 · 비용 규모

- KBS의 2024년도 총수입⁹⁾은 1조 3,317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3,164억 원 대비 153억 원(1.2%) 초과 달성하였으나, 전년보다는 927억 원(6.5%) 감소하였음.
- 한편, KBS의 2024년도 총비용¹⁰⁾은 1조 4,034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4,595억 원보다 561억 원(3.7%) 적고, 전년보다는 688억 원(4.7%) 감소하였음.
- 수입에서 비용과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손실은 735억 원으로, 당초 예산상 당기순손실 1,431억 원 대비 696억 원 개선되었음.

<KBS 손익 현황(2024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23년 결산(a)	2024		예산 대비 결산		전년 대비	
		예산(b)	결산(c)	결산액 (c-b)	비율(c/b)	증감액 (d=c-a)	증감율(d/a)
수입(A)	14,244	13,164	13,317	153	101.2	-927	-6.5
비용(B)	14,722	14,595	14,034	-561	96.3	-688	-4.7
세전이익 (A-B)	-478	-1,431	-717	714	50.1	-239	50.0
법인세비용(C)	75	-	18	18	-	-57	-76.0
당기순이익 (A-B-C)	-553	-1,431	-735	696	51.4	-182	-32.9

자료: KBS

9) 총수입 = 매출액(사업수입) + 사업외 수입

10) 총비용 = 매출원가(사업비) + 판매비와 관리비 + 사업외 비용 + 법인세비용

- 수익구조를 사업순익과 사업외순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4년도 사업부문에서 881억원의 손실, 사업외 부문에서는 164억원의 이익이 각각 발생하였음.
- 사업 부문에서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손실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2024년에는 수신료 분리고지 여파와 지상파 광고시장 규모 축소 및 프로그램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사업외 부문에서는 관계사 지분법이익 등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음.

<KBS 손익 구조(2019~2024년)>

(단위: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사업순익	△759	△140	△71	△90	△645	△881	△2,586
사업외순익	784	548	232	△86	167	164	1,809
법인세	9	81	△232	△58	75	18	△107
당기순이익	16	327	393	△118	△553	△735	△670

자료: KBS

- 참고로, 2024년 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비교해 보면, KBS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735억원, SBS 당기순손실이 174억원 각각 발생한 반면, MBC는 215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

<방송 3사의 당기순이익(순손실) 현황(2019~2024년)>

(단위: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KBS	16	327	393	△118	△553	△735
MBC	1,987	△267	1,773	59	966	215
SBS	33	△782	1,077	1,204	316	△174

자료: KBS

나. 수입 · 비용의 구성

- 2024년 수입 1조 3,317억원 중 1조 2,974억원(97.4%)은 매출액이 차지하고, 매출액은 전년대비 891억원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중 6,516억원(매출액 대비 50.2%)은 수신료수입임.
- 2024년 비용 1조 4,052억원 중 매출원가가 1조 1,576억원(82.4%)이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2,279억원(16.2%), 사업외비용 및 법인세비용이 197억원(1.4%)임.

<수입·비용의 구성비(2023·2024년)>

(단위: 억 원, %, %p)

구 분			2023년(A)	2024년(B)	증감(B-A)
수 입	매출액	금 액	13,865	12,974	-891
		구성비	97.3	97.4	+0.1
	사업외수입	금 액	379	343	-36
		구성비	2.7	2.6	-0.1
	계	금 액	14,244	13,317	-927
		구성비	100.0	100.0	0.0
비 용	매출원가	금 액	12,537	11,576	-961
		구성비	84.7	82.4	-2.3
	판매비와 관리비	금 액	1,973	2,279	306
		구성비	13.3	16.2	2.9
	사업외비용	금 액	212	179	-33
		구성비	1.4	1.3	-0.1
	법인세비용	금 액	75	18	-57
		구성비	0.6	0.1	-0.5
	계	금 액	14,797	14,052	-745
		구성비	100.0	100.0	0.0
당기순이익(금액)			-553	-735	-182

자료: KBS

다. 이익잉여금 처분(안)

- KBS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39조(손익금의 처리)¹¹⁾에 따라 처리하는데, KBS는 2024회계연도 당기순손실 735억 원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할 계획임.
- KBS의 이익잉여금 처분(안)은 우리 위원회의 결산 승인에 따라 확정¹²⁾되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KBS의 이익잉여금 처분(안)(2024년)>

(단위: 억 원)

구 분	처분 전	당기처분	처분 후	비 고
이익준비금	1,031	-	1,031	• 자본금의 1/2까지 이익금의 2/10 이상 적립 : 완료
기업발전적립금	2,037	-	2,037	• 법인세법 제56조 : 2001.12.31 폐지
기업합리화적립금	90	-	90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2002.12.11 폐지
사업확장적립금 등	1,347	-735	612	• 공사 정관 제39조
국고납입(배당)	-	-	-	• 기획재정부 배당 통보
합 계	4,505	-735	3,770	

자료: KBS

- 11)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3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기타의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4. 사업확장적립금등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5. 국고에의 납입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등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법정적립금, 동항 제4호의 사업확장적립금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12) 「방송법」 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Ⅱ. 검토 의견

1 전반적인 경영 지표 악화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3년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도 당기순손실이 735억 발생하여 경영지표가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수익성지표 분석

- KBS의 2024년 매출액 순이익률은 -5.7%,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1.5%, 총자산 순이익률은 -6.3%로, 전년도 대비 각각 1.7%p, 3.6%p, 2.0%p 감소하였음.
- 2024년 지상파 방송 3사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1.7%, 자기자본 순이익률 -4.4%, 총자산순이익률 -2.3%로 전체적으로 수익성 지표가 감소 추세이나, KBS는 지상파 3사 가운데서도 수익성 지표가 가장 낮은 수준임.

<지상파 3사의 수익성 지표(2022~2024년)>

(단위: %, % p)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KBS	(전년 대비)	MBC	SBS	방송사 평균	KBS	MBC	SBS	KBS	MBC	SBS
매출액 순이익률	-5.7	-1.7	2.9	-2.3	-1.7	-4.0	13.0	3.6	-0.8	0.7	11.9
자기자본 순이익률	-11.5	-3.6	0.9	-2.5	-4.4	-7.9	4.3	4.3	-1.5	0.3	17.0
총자산 순이익률	-6.3	-2.0	0.9	-1.6	-2.3	-4.3	4.0	2.7	-0.9	0.2	9.8

주: 1) 매출액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2) 자기자본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3) 총자산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료: KBS, MBC, SBS

- 이러한 수익성 지표의 악화는 2024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신료수입, 방송광고수입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매출액(1조 2,974억원)이 2023년 대비 891억원 감소하였고,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 관련 비용 증가로 판매비와관리비가 2023년 대비 306억원 증가하여 사업손실 881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735억원 발생하였음.

<KBS의 손익 구조(2021~2024년)>

(단위: 억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순익	△71	△90	△645	△881
사업외순익	232	△86	167	164
법인세	△232	△58	75	18
당기순이익	393	△118	△553	△735

자료: KBS

- 특히 2022년 이후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후술하듯 수신료수입 및 방송광고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방송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성장성지표 분석

- KBS의 2024년 성장성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율이 - 6.5%, 총자산 증가율이 - 8.7%, 자기자본증가율이 - 9.0%로, 각각 전년 보다 감소하였음.
- 자기자본증가율의 감소는 2024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에서 기인하며, 이는 사업확장적립금에서 보전할 예정임.

<최근 3년(2022~2024년) KBS의 성장성 지표>

(단위: %, %p)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	1.7	△6.5	△6.4	0.1
	총자산 증가율	3.0	△8.4	△8.7	-0.3
	자기자본증가율	△1.4	△8.5	△9.0	-0.5

주: 1) 매출액 증가율: 당기말 매출액/전기말 매출액

2)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

3) 자기자본 증가율: 당기말 자기자본/전기말 자기자본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 KBS의 자산 중 유동자산은 2,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755억원 (25.1%) 감소하였고, 비유동자산은 9,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원 (3.6%) 감소하였음.

- 유동자산 항목의 경우, 2022년부터 지연되었던 재송신료 단가 협상이 완료되고 정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자산 증가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음.

- 비유동자산 항목의 경우, 투자자산은 지분법손익 반영 등으로 93억원(2.4%) 증가하였고, 유형자산은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등으로 378억원(7.1%) 감소하였음.

<최근 3년의 자산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a)	2024년(b)	증감(b-a)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17	385	648	263
매출채권	2,898	2,056	1,385	△671
기타당좌자산	515	494	162	△332
단기투자자산	-	-	-	-
재고자산	91	76	61	△15
유동자산 소계	3,921	3,011	2,256	△755
투자자산	3,953	3,942	4,035	93
유형자산	5,483	5,287	4,909	△378
기타비유동자산	595	544	479	△65
비유동자산 소계	10,031	9,773	9,423	△350
자산총계	13,952	12,784	11,679	△1,105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다. 생산성지표 분석

- KBS의 2024년 부가가치율은 39.1%, 총자본투자효율은 43.4%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전손실 확대, 인건비 절감 등으로 2024년도 부가가치액¹³⁾ 5,073억원으로 전년도 5,825억원 대비 12.9% 감소한 영향을 받음.
-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1인당 매출액 또한 3억 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KBS의 생산성 지표(2020년~202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가가치율	49.8	45.8	40.5	42.1	39.1
총자본 투자효율	53.3	49.3	43.1	45.7	43.4
1인당 매출액	299	333	357	343	342

주: 1)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액/매출액) x 100

2) 총자본 투자효율 : (부가가치액/총자본) x 100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서

13) 부가가치액=세전이익+인건비+금융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임차료+세금과공과+감가상각비

라. 안정성지표 분석

- KBS의 2024년 유동비율은 175.9%, 당좌비율은 171.1%, 부채비율은 83.1%로 전년보다 안정성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유동자산과 당좌자산이 2023년도에 비해 감소(각각 25.1%와 25.2%)한 것에 기인함.
-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은 90.6%로 전년보다 상승하였음.

<KBS의 안정성 지표(2019년~2024년)>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동비율	146.9	183.6	229.3	201.3	193.0	175.9
당좌비율	143.6	180.4	226.2	196.7	188.1	171.1
고정장기적합률	90.7	86.8	80.3	83.6	87.1	90.6
부채비율	87.1	76.4	74.3	82.1	82.3	83.1

- 주: 1) 유동비율¹⁴⁾: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2) 당좌비율¹⁵⁾: (당좌자산/유동부채)× 100
 3) 고정장기적합률¹⁶⁾: [비유동자산/(자기자본+비유동부채)]× 100
 4) 부채비율¹⁷⁾: (부채총계/자기자본)× 100

자료: KBS

-
- 14) 유동비율은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보유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15) 당좌비율은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즉각적인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임.
- 16) 고정장기적합률은 보유자산의 고정화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우량한 기업임.
- 17) 부채비율은 부채 대 자본의 비율로 타인 자본에 대한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음.

마. 종합 분석

- KBS의 2024년 수익성 지표를 보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 6.3%,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 11.5%, 매출액 순이익률은 - 5.7%로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성장성 지표를 보면, 매출액증가율은 - 6.4%, 총자산증가율은 - 8.7%, 자기자본증가율은 - 9.0%로, 전년보다 각각 감소하였음.
- 다음으로,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을 살펴보면, 각각 39.1%, 43.4%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정성지표인 유동비율은 175.9%, 당좌비율은 171.1%, 고정장기적합률은 90.6%, 부채비율은 83.1%로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
-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역시 당기순손실이 735억 발생하여 경영지표가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안정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KBS는 2024년 영업손실을 공사의 정관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할 예정이나(p.14 참조), 손실이 지속될 경우 자본잠식 및

공영방송 존립 위기가 우려되므로¹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¹⁹⁾

18) KBS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따라 손익금 처리 후 이익잉여금 예상 잔액은 3,770억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이 735억원임을 고려할 때, 매년 유사한 수준의 손실이 지속된다면 약 5~6년 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됨.

19)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한국방송공사는 2023년도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중장기적인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회사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BBC나 NHK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2 (수입) 수신료 통합고지 제도입에 따른 면밀한 준비 필요

○ KBS는 수신료수입이 2024년 분리고지 시행 이후 급감한 가운데, 2025년 10월 통합고지 제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한국전력과의 협의 및 대응계획이 미비한 상황으로, 고지방식 전환에 따른 징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수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시급함.

- KBS는 「방송법」 제56조²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²¹⁾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공사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2024년 KBS의 수신료 수입은 6,516억원으로 2023년 대비 335억 원(△4.9%) 감소함.
- 수신료수입이 KBS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도 결산 기준 48.1%, 2024년도 결산 기준 48.9%로, KBS 총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20) 「방송법」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21)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KBS 수신료수입 현황(2024년)>

(단위: 억 원, %)

과목	2024년 예산 (A)	2024년 결산 (B)	2023년 결산 (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수신료수입(a)	5,121	6,516	6,851	1,395	127.2	-335	△4.9
총수입(b)	13,164	13,317	14,244	153	101.2	-927	△6.5
비중(a/b)	38.9	48.9	48.1	-	-	-	-

자료: KBS

- 2024년 수신료수입이 감소한 것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²²⁾으로 수신료 고지방식이 전기요금과의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는 등 수납 이탈이 있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수신료 고지액 대비 수납율은 2022년 100%, 2023년 98%로 매우 높았으나, 분리고지 시행 이후인 2024년 8월 85.6%로 급격히 하락한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2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2024년 KBS 수신료 월별 납부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고지금액(A)	수입금액(B)	수납율(B/A)
1월	578	572	98.9%
2월	579	550	95.0%
3월	578	567	98.1%
4월	570	561	98.4%
5월	576	556	96.4%
6월	569	568	99.7%
7월	572	559	97.8%
8월	578	494	85.6%
9월	581	522	89.8%
10월	580	523	90.1%
11월	572	521	91.1%
12월	571	524	91.8%
합 계	6,904	6,517	94.4%

자료: KBS

- 이에, 2025년 4월 「방송법」 개정²³⁾에 따라 10월부터 수신료 통합 고지가 제도입될 예정으로 수신료수입 감소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수신료 고지방식의 단기간 내 변경에 따른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 준비가 시급함.

23)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2> [시행일: 2025. 10. 23.]

- 이에 대하여 KBS는 통합징수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제도 변경에 대비한 인력운영계획, 민원 콜센터 확대,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통합징수 재개 관련 한국전력공사와의 업무 확정 등 KBS의 세부 운영계획이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는 10월 고지방식 전환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KBS는 통합고지 방식 재도입에 대비하여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신료 관리, 민원 대응 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고지방식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수입)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수입 감소 대응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타 지상파 방송사 대비 경쟁력도 약화 되고 있으므로,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KBS의 수입 중 방송광고수입은 지상파TV,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를 활용한 상업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4년은 전년 대비 290억원 감소(△14.7%)한 1,677억의 수입이 발생하였음.

<KBS 방송광고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과목	2024년 예산 (A)	2024년 결산 (B)	2023년 결산 (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방송광고수입	2,580	1,677	1,967	-903	65.0	-290	△14.7

자료: KBS

- 연도별 KBS의 방송광고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중간광고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2022년 2,642억원(전년 대비 63억원 감, △2.3%), 2023년 1,967억원(전년 대비 675억원 감, △25.5%), 2024년 1,677억원(전년 대비 290억원 감, △14.7%)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KBS의 방송광고수입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방송광고수입	2,319	2,705	2,642	1,967	1,677
증감	-	386	△63	△675	△290
증감률	-	16.6%	△2.3%	△25.5%	△14.7%

자료: KBS

- 이러한 KBS의 방송광고수입 감소는 OTT 서비스 확대 등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로 지상파TV를 포함한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의 '20~'24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2%, 8.5%로 증가 추세인 반면, 방송광고시장의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4.1%로 감소 추세임.
- 최근 5년간(2020~2024년) 방송광고 매출을 살펴보면, 2021년 중간광고 도입으로 일시적 증가를 보였으나, 광고주의 수요가 디지털 광고시장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2022년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상파TV 광고시장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방송통신 매체별 광고매출(광고비) 증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정치)	'20~'24 연평균 성장률
방송	27,172	31,486	30,830	24,983	22,964	△4.1%
(지상파TV)	(10,013)	(12,071)	(12,090)	(9,273)	(8,354)	(△4.4%)
인쇄	19,201	20,208	21,277	20,261	20,394	△1.9%
인터넷	18,394	17,797	19,027	20,766	22,556	5.2%
모바일	56,890	62,239	68,035	72,887	78,802	8.5%
기타	11,877	14,399	16,652	17,598	18,002	11.0%

자료: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5.6.) 재구성

주1) 방송은 재산상황 조사/ 인쇄, 인터넷, 모바일 등 광고비는 KOBACO의 방송통신광고비조사(2024년) 참조

- 한편, KBS의 방송광고수입은 방송광고시장의 절대 규모 감소뿐 아니라 타 방송사 대비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지상파TV 광고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KBS의 방송광고 수입은 지상파 방송광고 전체 수입감소 (△9.9%)를 상회하는 14.7% 감소한 1,67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방송 3사(KBS, MBC, SBS) 중 광고수입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1.9%→21.2%→20.1%)에 있음.
- 이는 KBS가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변화하는 광고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KBS의 경쟁력이 타 방송사 대비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수입 비교>

(단위: 억 원)

구 분		지상파방송사 광고수입(A)	MBC	SBS	KBS	
					광고수입 (B)	점유율 (B/A)
2022년	광고수입	12,090	2,760	3,701	2,642	21.9%
	증감률	0.2%	1.7%	4.7%	△2.3%	
2023년	광고수입	9,273	2,028	2,900	1,967	21.2%
	증감률	△23.3%	△26.5%	△21.6%	△25.5%	
2024년	광고수입	8,354	2,064	2,415	1,677	20.1%
	증감률	△9.9%	1.8%	△16.7%	△14.7%	

자료: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25.6.) 재구성

- 따라서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로 방송광고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²⁴⁾

24)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한국방송공사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수입 감소 전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4 (수입) 지속되는 콘텐츠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익 기반 개선 필요

○ 한국방송공사의 콘텐츠판매수입은 산업 전반의 성장세와 달리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제작비 감축과 권리 확보 한계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대응전략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콘텐츠 수익 기반 회복을 위해 제작비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KBS의 기타방송사업수입은 콘텐츠판매수입, 프로그램 협찬 및 캠페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2024년도 기타방송사업수입 4,513억 원은 예산액 4,896억 원보다 383억 원 미달한 수준이고, 2023년도 결산 4,748억 원보다 235억 원(△4.9%) 감소한 수준임.

<KBS 기타방송사업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억 원, %)

과목	2024년 예산 (A)	2024년 결산 (B)	2023년 결산 (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기타방송사업수입	4,896	4,513	4,748	-383	92.2	-235	△4.9

자료: KBS

○ 기타방송사업수입은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이는 전체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2024년 기준 76.9%)을 차지하는 콘텐츠판매수입의 하락이 주요 원인임²⁵⁾.

25) 협찬 및 캠페인 수익은 '22 715억 원→'23년 743억 원→'24년 808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3년 KBS의 기타방송사업수입 현황 및 콘텐츠판매수입 비중>

(단위: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기타방송사업수입	4,934		4,748		4,513	
- 콘텐츠판매수입	3,872	78.5%	3,780	79.6%	3,472	76.9%

자료: KBS

- KBS의 콘텐츠판매수입은 202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감소폭도 2023년 △92억원, 2024년 △30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24년에는 국내(△98억 원)보다 해외 콘텐츠판매수입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전년 대비 210억 원(△35.2%) 감소한 387억원을 기록하여 최근 6년 내 최저 수준임.

<KBS 콘텐츠 국내외 콘텐츠판매수입 추이(2019~2024)>

(단위: 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내	2,680	2,929	3,305	3,417	3,183	3,085
해외	468	397	472	455	597	387
총액	3,148	3,326	3,777	3,872	3,780	3,472

자료: KBS 202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 이처럼 KBS의 콘텐츠판매수입이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판매(국내+해외)는 2021년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액은 2023년에 전년 대비 31.6% 증가(3,543억 → 4,660억원), 해외수출액도 2021년 2억 1,333만 달러에서 2023년 2억 8,023만 달러로 3년 연속 상승함.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국내 판매와 수출 현황(2021~2023년)>

구분	국내판매(억원)			해외수출(단위: 만\$)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지상파방송	3,781	3,543	4,660	21,333	27,124	28,023

주1) 수출입 총액에는 방송프로그램(완성품) 이외에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DVD 판매, 타임블럭, 포맷, 기타가 포함

주2) 2023년부터 통계방식이 변경되어 CP 실적을 분리. 2023년 해외수출 수치는 추이 분석을 위해 이전 기준(지상파+계열CP) 집계액을 표기

자료: 2024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2024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콘텐츠 산업 성장에 역행하는 KBS의 콘텐츠판매수입 감소에 대하여 ‘제작비 상승에 따른 소유권리 유출, TV-VOD 이용률 감소 및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에 따라 공사의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최근 KBS는 경영악화로 인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비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비를 감축하였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경쟁력이 저하되고 수익성 악화가 다시 제작비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질 우려도 있음.

- 향후 KBS는 콘텐츠 수익 기반 회복을 위해 제작비 확보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투자 증대, IP 확보)와 산업구조 변화(OTT 및 디지털 중심으로의 시장재편)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²⁶⁾

26)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한국방송공사는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해외판매, 유튜브 운영 등을 통해 수입의 증가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5 (비용)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 2024년 KBS의 판매비·관리비는 대손상각비 107억 원 급증으로 전년 대비 306억 원(15.5%) 늘어난바, 대손충당금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수 관리와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KBS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수신료징수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간접비용으로 구성되며, 긴축경영 기조로 전체 총비용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2024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306억 원(15.5%) 증가한 2,279억원이 집행됨.

<KBS 판매비와 관리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과목	2024년 예산(A)	2024년 결산(B)	2023년 결산(C)	예산 대비		전기 대비	
				차이 (D=B-A)	달성(집행)률 (E=B÷A)	차이 (F=B-C)	증감률 (G=F÷C)
총비용	14,595	14,052	14,797	-543	96.3	-745	-5.0
- 판매비와 관리비	2,572	2,279	1,973	-293	88.6	306	15.5

자료: KBS

- 특히, 2024회계연도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항목은 전년 대비 112억원 증가해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67.5%)을 기록하였는데, KBS의 「2024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그 주요 원인으로 일회성 대손상각비 107억 원 증가를 제시하고 있음.²⁷⁾

<2024년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별 증감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	증감률
수신료징수비	918	715	203	28.4
광고운영비	285	377	-92	-24.4
일반관리비	278	166	112	67.5
인건비 ^{주)}	763	676	87	12.9
감가상각비	35	39	-4	-10.3
합계	2,279	1,973	306	15.5

자료: 2024회계연도 KBS 결산검사서(감사원)

주) 매출원가에 포함된 인건비 제외

- KBS 최근 3년간 매출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898억 원, 2023년 2,056억 원, 2024년 1,38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대손상각비는 기존 1억 원 수준에서 2024년 107억 원으로 급증하여 매출채권 대비 비중도 7.7%로 상승하였음.

<연도별 대손상각비 규모 및 자산,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대손상각비(A)	기말 매출채권(B)	비중(A/B)
2022	1	2,898	0.05%
2023	1	2,056	0.05%
2024	107	1,385	7.70%

자료: KBS

27) 참고로, ‘판매비와 관리비’ 부문별 증감액 중 ‘인건비’ 항목이 전년 대비 87억 원(12.9%) 증가하였는데, KBS에 따르면 이는 수신료 징수업무로 인해 PD, 기자 등을 사업장으로 파견하였고, 기존에 이들의 인건비는 방송제작비에 해당하여 ‘방송작업비’(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나, 수신료 징수업무로 업무가 변경되면서 판매비 상 인건비로 항목이 변경되었다는 의견임.

- 대손상각비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출채권의 손실을 반영하는 비용으로, 동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건전성 악화나 회수관리의 미흡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됨.
- KBS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미회수된 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특정 거래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해당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 사실이 반영되며 대규모 대손충당금에 일시에 반영됐고, 결과적으로 대손상각비가 전년 대비 급증하였음.

<최근 5년간 대손충당금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손충당금	10	6	6	6	112

자료: KBS

- 대손충당금은 이미 사실로 확정된 손실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KBS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수관리와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6 자본예산 집행실적 저조 문제

○ 한국방송공사는 긴축경영 기조에 따라 자본예산을 감축하고 집행실적도 저조함에 따라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장기적 성장동력 및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향후 자본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실제 집행 시에도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KBS는 2024년에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지역제작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자본예산으로 398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93억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48.5%임.

- KBS는 긴축경영을 위하여 2024년도 전년 대비 506억원(△56.0%) 감액된 398억원의 자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93억원만 집행하여 예산대비 205억원(△51.5%)을 감축 집행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인 2023년 결산에 비해서도 277억원(58.9%) 감소한 수치임.

<KBS 자본예산 예·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617	469	76.0%	388	224	57.7%	153	79	51.6%
지역국 청사 신증축	0	0	-	10	0	0	5	0	0
연구개발, 정보화, 뉴미디어	125	81	64.8%	136	89	65.4%	66	35	53.0%
방송제작장비 보강	120	107	89.2%	155	56	36.1%	60	35	58.3%
일반시설 보강	162	119	73.5%	181	69	38.1%	56	49	87.5%
투자과 기타	446	440	98.7%	3,4	32	94.1%	58	-5	-8.6%
합계	1,470	1,216	82.7%	904	470	52.0%	398	193	48.5%

자료: KBS

- 특히 2023년 이후 KBS의 자본예산 집행 금액이 연간 감가상각비에 미치지 못하고(△135억원) 2024년 △370억원으로 그 차이가 심화되었는데, 이는 장비와 시설이 낡아감에 따라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새로운 투자로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자본예산 집행액과 감가상각비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자본예산 집행(A)	감가 상각비(B)	차이 (B-A)	자본예산 집행(A)	감가 상각비(B)	차이 (B-A)	자본예산 집행(A)	감가 상각비(B)	차이 (B-A)
금액	1,216	529	-687	470	605	135	193	564	370

자료: KBS

- 이러한 자산의 노후화는 KBS의 유형자산 추이에도 나타나고 있음.
2024년 KBS의 유형자산은 전년 대비 378억원(△7.1%) 감소한 4,909억원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바, 현재 투자수준으로는 노후자산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유자산의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KBS 유형자산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총자산	12,727	13,541	13,952	12,784	11,679	△1,105	△8.6%
- 유형자산	5,332	5,245	5,483	5,287	4,909	△378	△7.1%

자료: KBS

- 이에 KBS는 자본예산 집행저조 사유로 명예퇴직자 학자금 등 반납액이 예산액 보다 초과 발생하는 한편, 공사의 재정악화와 UHD 정책 지연으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축소·취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KBS의 긴축경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자본예산의 지속적인 집행실적 감소는 방송시설·장비 등의 노후화를 촉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공영방송인 KBS는 재난방송 제공 등 일반 방송사보다 더 높은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인프라가 중요하며,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함.
- 따라서 KBS는 향후 자본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정 금액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 시에도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 개선 필요

- 한국방송공사는 향후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고용부담금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이라 함) 제28조²⁸⁾에 따라 KBS는 장애인고용의 법정 의무가 있고, 동 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을 고려한 KBS의 법정고용의무 비율은 3.1%이며, 2024년 기준 인원은 132명에 해당함.

- 참고로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2²⁹⁾는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를 규정하여 2024년 기준 3.8%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KBS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1%가 적용된 것임.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29)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그런데 KBS의 장애인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87명으로, 의무고용 달성률이 65.9%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법정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임.
- KBS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을 살펴보아도 2021년(72.1%)을 제외하고 모두 7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으로, 매년 등락을 반복할 뿐 개선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 KBS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무고용 대상인원(a)			148	147	142	140	132
장애인 고용	근무 인원	계	84	90	81	76	73
		경증	68	74	65	62	59
		중증	16	16	16	14	14
	의무고용비율(법정 31%)		2.1%	2.2%	2.1%	2.0%	2.0%
	중증 2배 산정 시(b)		100	106	97	90	87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률(b/a)			67.6%	72.1%	68.3%	64.3%	65.9%

자료: KBS

주)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산정방법(중증장애인은 2배수 계산)에 따름

- 이에 KBS는 「장애인고용법」 제33조³⁰⁾에 따라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며,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34억원에 달함.

<KBS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납부액	703	556	629	731	744	3,363

자료: KBS

- KBS는 이에 대해 미디어 산업 특성상 장애인 적합 직무가 많지 않아 공개채용 시 장애인의 지원율이 저조하고,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신규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향후 공개채용 시 장애인 지원자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도 도입 검토 등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채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KBS와 유사하게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EBS는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왔고, 2024년에는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점을 고려

30)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할 때, KBS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현 상황의 개선이 필요함.

<최근 5년 EBS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무고용 대상인원(a)			19	22	21	21	20
장애인 고용	근무 인원	계	15	13	15	15	16
		경증	9	5	9	9	7
		중증	6	8	6	6	9
	중증 2배 산정 시(b)		21	21	21	21	25
장애인 의무고용비율(b/a)			110.5%	95.4%	100%	100%	125%

자료: EBS

- 따라서 KBS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법정 의무 비율 3.1%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고용부담금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³¹⁾

문 의 처

6788-5226

31)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심의결과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음.

부대의견	조치결과
1. 한국방송공사는 2023년도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바, 중장기적인 경영지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회사의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BBC나 NHK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 공사는 2024년 핵심 사업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공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다각적 재원 확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및 계열사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수신료 징수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신료 고지·징수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으로 수입 누수를 최소화하고 콘텐츠 및 광고 수입 확대와 직급체계·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화와 효율적 조직을 구현하였습니다. ▪ 공사는 수신료, 광고, 콘텐츠의 3대 핵심 수입원의 증대를 위해 ROI(투자수익률)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작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정 수준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글로벌 OTT와 적극적 파트너십 강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제작진을 확보 및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창출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조치결과
	3대 재원 외에도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지난 6월 사장 직속 프로젝트팀으로 「미래비전추진단」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제작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공사가 보유한 자산의 전략적인 활용을 통해 공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중장기적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AX프로젝트팀을 신설 (24년 12월) 하고 AI 제작도구 현업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한국방송공사는 미납 수신료 납부 독려 등 수신료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2024년 7월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됨에 따라 30년만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초기 혼선과 수납율 하락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는 수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치를 시행 및 조치할 계획입니다 - 현재 수신료 미납자에게는 익월에 미납 수신료와 가산금을 정확하게 누적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납금 납부 독려 및 수신료 납부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영방송 제도와 수신료 가치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부대의견	조치결과
	수신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납부자에게는 자동이체 방법, 종이청구서 수령자에게는 IT 청구(모바일, 이메일) 방식을 안내하는 등 고지 및 납부방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수납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나아가,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수신료 미납 후 전출한 경우 미납자의 추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주민번호)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방송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절차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위해 방통위 등 관계 기관과 관련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3. 한국방송공사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수입 감소 전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 지상파 광고시장은 2021년~2022년 코로나 기간 방송 시청 증가, 중간광고 도입 등에 따라 일시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2023년 국내외 경기 부진, OTT 등 디지털 및 종편·유료방송과의 경쟁 심화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사는 물론 타 지상파 모두 광고수입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 KBS는 공사 재원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 대기魄 콘서트 등 공영방송사로서 타 채널과

부대의견	조치결과
	차별화되는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였지만, 치솟는 제작비와 미디어 시장 내 경쟁 심화로 광고 수입을 제고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콘텐츠 이용 환경이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였지만, 방송광고시장은 과거 법적 규제 체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동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디지털광고는 사실상 규제 없이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광고를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데 반해, 방송광고는 형식(광고유형 및 방법), 내용(광고품목 제한, 품목별 광고시간, 광고표현), 판매거래(미디어랩, 결합판매제도, 광고 수탁수수료) 규제 등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이는 방송 제작재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방송협회 등 유관기관 및 방송업계와 공동 대응을 통해 방송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방송 광고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져 지상파 방송사가 처한 자원 위기에 돌파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 방송협회를 통해서 시행령 이하 방송광고 및 협찬 규제 완화 건의서 제출 (24.1.29.)

부대의견	조치결과
	- 가상광고 허용 범위 확대(포지티브 규제, 날씨 등 생활정보까지 확대)(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 라디오 간접광고 허용(디지털 팟캐스트 등과 규제 형평성 제고, 라디오 광고 활성화)(동법 시행령 제59조의3) -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품목 가상/간접 광고 금지 규제 해소(시간대 규제 받는 상품의 가상/간접광고 전면금지 해소 등 이중규제 해소)(동법 시행령 제59조의2,3) - 가상/간접광고 크기 제한 규제 폐지(경쟁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동법 시행령 제59조의2,3) - 프로그램 제목협찬 도입(디지털미디어와 불균형 해소, ESG 강화)(협찬고지 규칙 제6조) ▪ 방송협회를 통해서 의료광고 방송광고 허용 요청서 제출(24.2.13.) - 방송을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광고가 가능함. 방송의 영향력 하락 및 자유 공정 시장질서 위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 ▪ 방송협회를 통해서 고열량·저영양

부대의견	조치결과
	식품의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 규제 완화 요청서 제출(24.2.29.) - 비만과 방송광고 간 상관관계 입증 불가, 정책의 실효성 한계, 방송산업의 위축효과 발생 및 어린이 콘텐츠 투자 위축 - 양육자에 대한 정보 제시 기능 강화, 매체 간 규제 형평성 강화 등 대안 제시(어린이식생활법 제10조) ▪ 방송협회를 통해서 조제유류 광고 금지 규제 폐지 요청서 제출(24.4.2.) - 기본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 미흡, 국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저출산 대응 방향과의 충돌, 국내 조제유류 산업에 대한 역차별(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호) ▪ 방송협회를 통해서 주류광고 도수제한 폐지 요청서 제출(24.5.20.) - 주류광고와 주류소비량 간 상관관계 희박,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 규제 실효성 및 형평성 상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3조 제2항 제13호)

부대의견	조치결과
4. 한국방송공사는 OTT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같은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 현재 KBS는 국내외 OTT에 투자 유치 및 콘텐츠 유통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쿠팡, 왓챠 등 국내 운영 중인 OTT에 KBS 콘텐츠를 적극 공급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의 글로벌 OTT뿐만 아니라 Viu(동남아), U-NEXT(일본) 등과 같은 해외지역 주요 로컬 OTT에 많은 작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브에는 채널에 편성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를 공급하여 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유통 플랫폼 개발 및 기존 플랫폼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콘텐츠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신규 OTT 플랫폼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콘텐츠 수입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공사는 예능센터 소속 디지털 전문 스튜디오인 <스튜디오K>를 2019년부터 설립해 디지털 도달률 제고와 수익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V플랫폼에 한정하지 않고 유튜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K-pop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2024년, KBS Kpop 유튜브 채널은 방송사 전체 Kpop 채널 중 Mnet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대의견	조치결과
	■ 글로벌 타깃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영타깃 도달률을 높여 채널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광고, 협찬 등 콘텐츠 수입을 증대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창출하며 방송환경 변화에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지털 No.1 KBS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 한국방송공사는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위하여 글로벌 OTT를 포함한 콘텐츠 해외판매, 유튜브 운영 등을 통해 수입의 증가와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KBS는 다양한 수입원 창출을 위해 글로벌 OTT와 해외 리저널 및 로컬 OTT에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다리미 패밀리>, <미녀와 순정남> 등 다양한 콘텐츠를 Netflix를 포함한 여러 해외 OTT에 공급하였고, <1박 2일>,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등 프로그램의 포맷 수출을 통해서도 유통 수입을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KBS는 KBS Kpop, KBS World TV, KBS News, KBS 다큐 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KBS 콘텐츠를 전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채널 누적 구독자 수 8,400만여명, 누적 조회수 809억회를 달성하는 등 한

부대의견	조치결과
	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 수입 또한 2019년 85억원에서 2023년 236억원으로 증가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콘텐츠 시청층 확대와 수입 증가를 위해 유튜브 쇼핑 기능 도입,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 한국방송공사는 인건비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한 비용 절감, 신규 수익 창출 등 손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직캠, 토크쇼 등 카메라가 많이 소요되는 제작 환경에 AI 리프레이밍 기술을 도입하여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카메라 제조사와 협력하여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버티고)의 상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 뉴스 VOD에 신속하게 자막을 제공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여 뉴스 홈페이지에 적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I를 이용하여 KBS 콘텐츠에 자막을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 영상 가편집시 AI STT(Speech To Text) 기능을 제작편집시스템(NPS)에 적용하여 프리뷰(preview) 노트 작성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제작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뷰가 많은 시사제작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용중에 있습니다.

부대의견	조치결과
	■ AI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기법을 제시하여 프로그램의 품질과 제작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AI 기반 프로그램 제작 워크플로우를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방영예정인 KBS대기획<성물(聖物)> 제작에 데이터셋 학습을 통한 AI 영상제작 기법을 도입하여 박물관 배경영상, 전쟁씬, 재현배우의 얼굴영상 복원 등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AI 기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제작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한 드론 촬영 기술, AI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 포스트 프로덕션 기술 등)
7.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 고지, 징수 시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 비용을 정밀하게 추산하고,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공사는 24년 7월 분리고지 시행 이후 관련 비용을 위탁징수기관인 한전과 매월 상호 검증을 거쳐 집행하고, 해당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중에 있습니다. ■ 징수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종이청구서 이용자에게는 IT청구(모바일, 이메일 고지서) 방식 안내, 계좌이체 등을 통한 직접납부자에게는

부대의견	조치결과
	자동이체 납부방법 안내 등의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납부 편의성 증대 및 징수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징수 비용 발생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방송 필수 지정사업자로서 KBS 2TV의 한국수어방송의 편성비율을 7%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7호]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한 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로서 KBS는 한국수어방송의 의무 편성비율 7% (20~21년 의무 편성비율: 5%)를 20~23년 동안 연평균 14% 이상의 이행실적으로 상회해 의무 대비 평균 240%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 다만 시청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방송은 재난방송 등 보도 장르가 집중 편성되는 1TV의 경우 한국수어 편성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드라마나 예능 등 오락 장르 비중이 높은 2TV는 현실적으로 한국수어의 편성 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한국수어방송의 편성에 있어 프로그램의 특성을

부대의견	조치결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지속하며, 적절한 예외 적용을 통해 모든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 한국방송공사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사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장애인 고용 관련 다양한 채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산업 특성상 장애인 적합 직무가 많지 않아 공개채용 시 장애인 지원자의 지원율이 저조하고 공사 인건비 절감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의 증가, 2023년 7월부터 이어진 수신료 분리고지 상황에 따른 공사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채용 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서 전형 단계별 우대 가점을 확대 부여해왔으며, 우대 가점의 적용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장애인 우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한시연봉직 공개채용’ 시 장애인 지원자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신입직원 정기공채

부대의견	조치결과
	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자 선발 예정인원 초과합격 제도란, 최종 면접 대상자 중 최종합격 순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는 제도임) 공사는 향후 신규 채용 실시 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한국방송공사는 광복절에 편성한 나비부인 오페라 중 기미가요가 방영된 것은 부적절하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공사는 광복절 <KBS 중계석> 프로그램을 통해 ‘나비부인 오페라’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기미가요가 함께 송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공사는 해당 이슈로 논란이 제기된 이후, 제작 및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사 프로그램 제작·편성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를 신속히 구성하였습니다.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주요 부서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 본 TF는 총 6회의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논의를 통해,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지침과 세부적인 검증 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부대의견	조치결과
	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 하였습니다. ■ 그 결과, 공사는 편성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KBS 편성준칙(안)” 제정을 위해 실무 운영 준칙(안)의 초안을 작성한 상태이며,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시 현업에서 참조할 수 있는 “KBS 제작편성 핸드북”의 초안 역시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이들 초안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공사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한국방송공사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이 역사왜곡, 정권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이 아니라 정규 프로그램인 <독립영화관>에서 8.15 특집으로 이승만 관련 다큐 ‘기적의 시작’을 방송하였습니다. ■ <독립영화관>은 매주 독립영화 중 한 작품을 선정해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영화의 뿌리인 독립영화 진흥을 위해 공영방송 KBS에서만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영화의 내용이나 의견은 한국방송공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대의견	조치결과
	▪ 다큐영화 ‘기적의 시작’ 도 다른 독립영화 선정 과정과 동일하게, 영화적 시각의 다양성을 위해 절차대로 구매해 방송한 영화인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치 편향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 향후에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시청자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영화 선정 기준 또한 더 엄격하게 하여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고,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작품을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 한국방송공사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 재승인 요건이었고, 현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므로, 임명동의제를 실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①편성규약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 ②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미개최시 사유 포함) 운영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을 조건부로 재허가 승인하였고 공사는 조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u>임명동의제는 재허가·재승인 요건이 아닙니다.</u> ▪ 박민 전 사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바 있으나, 취임 후 외부의 다수 전문가(로펌, 노동법 교수) 자문 결과 임명동의제는 “<u>방송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다.</u>” 는 자

부대의견	조치결과
	문을 받았고, 실제 여러 판례에서 임명동의 제는 “<u>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 부당하다.</u>” 거나, “<u>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도 있다.</u>” 고 판단하는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이에 공사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기에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3. 한국방송공사는 뉴스 시청률 하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 비교, 점검한다.	■ 시청자들의 뉴스 소비 플랫폼이 TV에서 포털 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변화하면서 지상파 TV 뉴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뉴스 9> 등 KBS의 TV 뉴스 프로그램 시청률도 과거와 비교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 다만, TV 뉴스 시청률이 주춤할 뿐, 뉴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합니다. 특히,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KBS 뉴스의 시청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여전히 신뢰받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KBS의 재난방송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KBS는 이러한 신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 공론의 장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깊이

부대의견	조치결과
	있고 정확한 보도로 공영언론의 책무를 다하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보도로 국가기간 방송사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라이브 방송, 디지털 전용 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달라진 뉴스 소비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TV를 포함한 전체 뉴스 소비 플랫폼에서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 한국방송공사는 2024년 7월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수신료 분리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다.	- 공사는 24년 7월 분리고지 시행 이후 누락없이 모든 납부의무자에게 수신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 수신료 분리고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수신료 고지방식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고지서의 의미를 이해한 경우, 고지서 송달 주소가 불명확하여 다른 주소지로 전달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고지서 송달 주소를 정비하고 고지 확인이 편리한 IT청구(모바일, 이메일)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관련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고지서 송달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수신료를 전기와 별도로 고지,

부대의견	조치결과
	납부하는 것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응대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사는 앞으로도 납부자 문의 시 고지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는 동시에, 모든 납부 의무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료가 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 한국방송공사는 OTT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지상파의 보편적 역무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사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타 방송사 및 OTT 플랫폼 등이 수행하지 않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공적책무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 공영미디어 구현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시청자와의 소통과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TV와 디지털을 융합하는 디지털 전략을 전사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의 디지털-방송 듀얼 퍼블리싱(Dual-Publishing), 디지털 스핀오프(Spin-Off) 콘텐츠 개발, 방대한 아카이브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차별화된 디지털 가치를 창출하고

부대의견	조치결과
	있습니다. 이는 곧 시청자들의 시청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무료 서비스 확대하는 노력입니다. ▪ 디지털 뉴스 소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24시간 연속성 있는 뉴스’ 서비스 확대 시행하고 뉴스·시사 제작 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디바이스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확대함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 도달률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총국 자체 생산 뉴스와 자체 편성 등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 미래 세대 대상 콘텐츠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미디어 경험을 제공하고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형 프로그램 생산하였습니다.
16. 한국방송공사는 올림픽 등 국민 관심 스포츠행사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차편성 권고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K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순차편성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중계권료와 방송법 제정 당시와 다른

부대의견	조치결과
	미디어 소비 환경의 변화로 대규모 적자에 직면하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이행하기 어려운 권고 사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인기 종목 중계 시간 확대’와 ‘시청자의 다양한 경기 시청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KBS는 2TV에 관심 경기를 편성하고, 1TV에 한국 선수 출전 비인기 종목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순차편성 효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자 핸드볼, 근대5종, 탁구 혼합복식 신유빈·임종훈 경기 등 한국 선수 출전 경기와 BMX, 스케이트보드, 브레이킹, 서핑, 조정, 마라톤 등 세계적 관심 경기를 1TV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KBS는 1TV와 2TV 외에도 무료 OTT 서비스인 KBS+와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방송 전용 채널 4개를 개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TV에서 방송되지 않는 세계적 관심 경기를 실시간 중계하며 시청자들의 다양한 경기 시청권을 보장하고, 비인기 종목 중계 시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순차방송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임무

□ KBS 설립목적(방송법 제43조)

-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정착
- 국내외 방송의 효율적인 실시

□ KBS 공적책임(방송법 제44조)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 노력
-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
-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
-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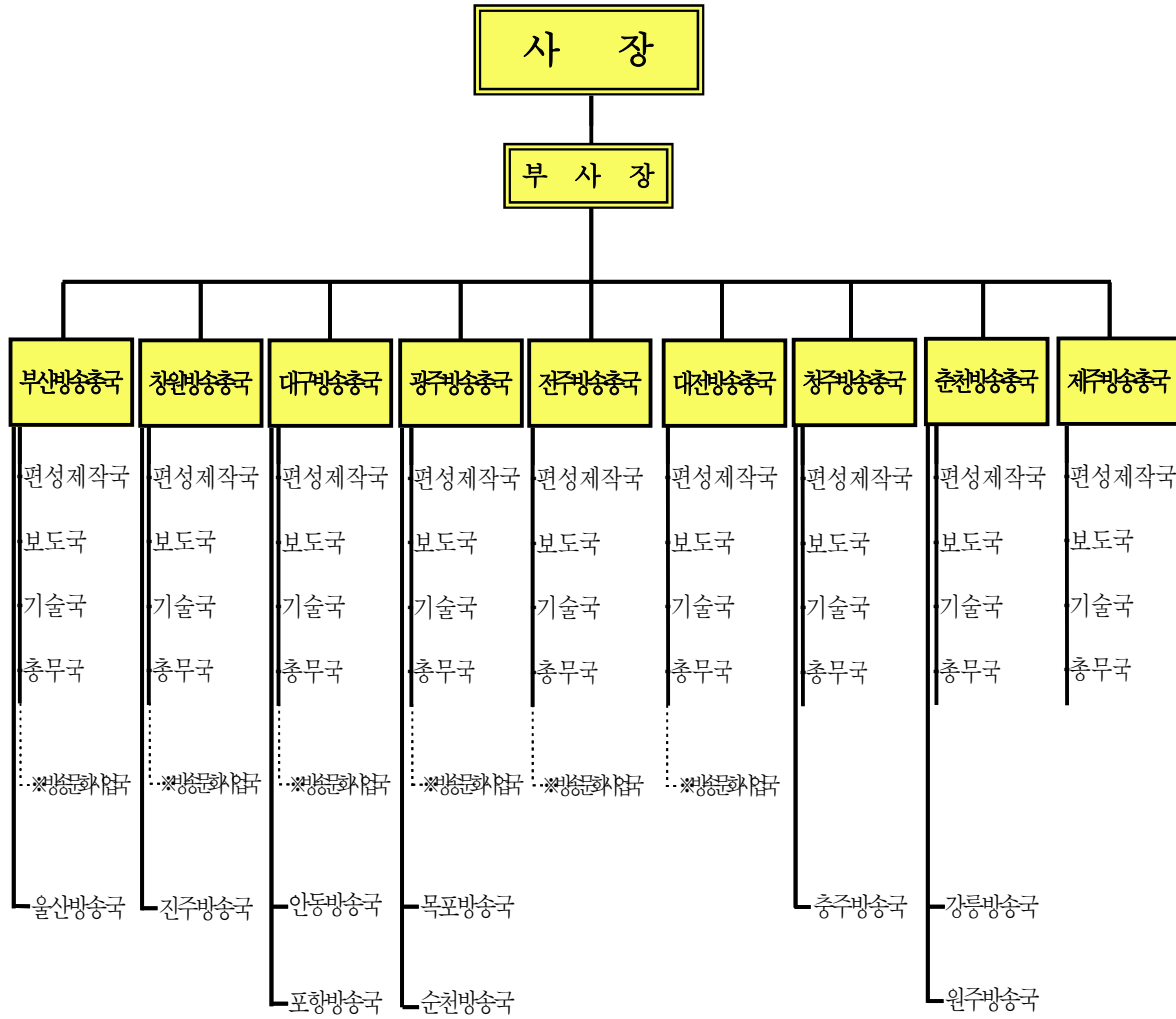
주요연혁

- 1927 라디오 방송 개시(JODK)
- 1947 ITU에서 한국에 호출부호 ‘HL’ 할당, KBS (중앙방송국) 출범
- 1948 국영방송 발족
- 1961 텔레비전방송 개국
- 197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 (공영방송 출범)
- 1980 텔레비전 컬러방송 시작, 광고방송 실시
- 1985 음성다중방송 실시
- 1986 아시안게임 주관방송 실시
- 1988 서울올림픽 주관방송 실시
- 1990 KBS방송강령 제정
- 1994 수신료징수제도 개선(한전 위탁징수), 1TV 광고 폐지
- 1995 인터넷 방송 개시
- 1997 제34차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ABU) 서울총회 개최
- 2000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 개국, 2라디오 FM방송 개시
- 2001 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
- 2002 한·일 월드컵 공식 방송 실시, 부산 아시안게임 주관방송 실시
- 2003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개국, KBS 윤리강령 제정
- 2004 지역국 기능 조정(9총국 9지역국으로 개편)
- 2005 APEC 2005 Korea 주관 방송 실시, KBS 지상파 DMB <U KBS> 개국
- 2006 MMS(멀티모드서비스) 시험방송
- 2007 지상파 DMB 전국방송실시, 세계공영방송총회 개최
- 2010 G20 서울정상회의 주관 방송 실시
-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3D 중계방송
- 2012 여수엑스포 주관방송 실시

- 2013 국제방송 개국 60주년, KBS월드 개국 10주년
- 2014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주관방송, ITU 전권회의 주관방송,
WORLD 24 해외서비스 출범
- 2015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방송기록물로는 세계2번째)
- 2016 지상파 UHD 방송사업 허가 취득
- 2017 세계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 2018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사
- 2019 지상파UHD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 및 시연
<KBS 방송 편성규약> 개정
- 2020 ‘코로나19’ 비상방송체제 가동
‘만삭의 위안부’ 영상 첫 발굴
- 2021 제주 UHD TV 방송국 개국
- 2022 <연모>, 한국드라마 최초 국제 에미상 수상
- 2023 공사창립 50주년
- 2024 언론사 최초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출범

<지역> 9총국, 9지역국

(2025.6.1. 기준)



인 원

(2025.06.01. 기준 / 단위: 명)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집행기관 계)	(12)	(7)	
사 장	1	1	
감 사	1	1	
부 사 장	2	1	
본 부 장	8	4	
(일반직 계)	(5,248)	(3,705)	
(책임직급 계)	(763)	(586)	
M1직급		55	
M2직급	763	158	
M3직급		373	
(실무직급 계)	(4,485)	(3,119)	
G0직급	109	40	
G1직급		1,115	
G2직급	1,734	362	
G3직급		695	
G4직급	1,992	547	
G5직급		98	
G6직급		78	
G7직급	650	184	
촉 탁 직	32	3	
방송음악직	54	28	
수습직원	-	3	
합 계	5,346	3,746	

예 산

□ 2025년도 예산

(단위 : 억 원)

수 입		비 용	
수 신 료	6,120	사업경비	7,794
광 고 료	1,807	판매수수료 및 법정지원금	1,368
콘텐츠판매	3,673	인건비	4,306
국고금수입	116	감가상각비	530
협찬/캠페인	889	사업외비용	133
시청자사업수입	135	예비비	
사업외수입	466	법인세비용	
기타	161		
합 계	13,367	합 계	14,131
		당기순이익	-764

※ 최근 10년 수지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수입	15,943	15,335	14,938	14,758	14,566	14,342	15,082	15,305	14,244	13,317
총비용	15,868	15,087	14,374	15,079	14,550	14,015	14,689	15,423	14,797	14,052
손익	75	248	564	-321	16	327	393	-118	-553	-735

운영매체현황

(2025. 6. 현재)

□ 방송 매체 현황

- ▶ TV, RADIO, DMB
- ▶ 국제 위성방송(KBS WORLD TV, KBS KOREA)

◇ TV (4개)

매체	채널	채널 운영
지상파	1TV(HD/UHD)	보도.시사정보.스포츠.교양
	2TV(HD/UHD)	건전한 가정문화채널 (연예, 오락)

◇ RADIO (7개)

매체	채널 운영	매체	채널 운영
1R	시사·교양 등 종합편성 채널	2FM	재미있고 젊은 예능 음악 채널
2R	한국인의 대중 음악 채널	한민족방송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민족의 중심채널
3R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위한 공익 채널	KBS WORLD R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창
1FM	국내 유일 클래식·국악 전문 채널		

◇ DMB (4개)

U KBS 채널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U KBS 스타★ 1TV 동시전송	U KBS 하트♥ 2TV 동시전송	U KBS 뮤직🎵 2FM 동시전송 + 자체 편성	U KBS 클로버♣ TPEG 서비스

◇ 국제 위성방송

구분	운영 현황
KBS WORLD TV	- 진입국가 : 전세계 155개국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 - 확보가구 수 : 1억4천만 가구 (*해외 SO 가입자 기준 추정 범위)
KBS KOREA	- 진입국가 : 미주, 아시아 등 65개국 (미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 해외 한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무료 서비스로 가구수 추정 불가

◇ 기타 (모바일앱)

구분	운영 현황
KBS+ ³²⁾	- 실시간채널 (39채널) : KBS1, KBS2, KBS 지역(10개), KBS N채널(5개), KBS 라디오(8개), KBS NEWS24, KBS WORLD TV 외 모바일 특화채널(2개), 정주행 24시간 라이브 채널(10개) - 다시보기 : KBS1, KBS2 방송 프로그램 다시보기 및 TV클립
Kong	- 실시간채널 (8채널) : 1R, 2R, 3R, 1FM, 2FM, 한민족방송, KBS WORLD English, KBS World Multilingual - 다시듣기 : KBS 라디오 프로그램 다시듣기, 팟캐스트(다운로드) 및 비방송 콘텐츠 제공

32) KBS+ : KBS와 자회사의 TV, 라디오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OTT(인터넷 스트리밍)서비스로 'myK' 서비스를 23년 9월 'KBS+(플러스)'로 리브랜딩하여 서비스 중임

기본방송시간

(2024. 12. 31. 기준)

구 분		방송시간 (1일 평균)
TV	제 1 T V	23시간 22분
	제 2 T V	20시간 23분
라 디 오	제 1 라디오	24시간
	제 2 라디오	22시간
	제 3 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21시간
	제 1 F M	24시간
	제 2 F M	24시간
	한민족방송	20시간 (제1방송 기준)
	KBS WORLD Radio	51시간 30분
DMB	U-KBS 스타★(V)	23시간 22분
	U-KBS 하트♥(V)	20시간 23분
	U-KBS 뮤직🎵(A)	24시간
	U-KBS 클로버♣(D)	24시간
국제 위성방송	KBS WORLD	24시간
	KBS KOREA	24시간

※ TV, 라디오, DMB(스타, 하트, 뮤직) 개편 기준

※ 제 1·2 FM 방송시간은 수도권 기준으로 작성

기본편성비율

(2024. 12. 31. 기준)

지 상 파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TV	제1TV	30.8	58.7	10.5	9,817분
	제2TV	6.4	36.1	57.5	8,564분
Radio	제1라디오	32.62	63.01	4.37	10,080분
	제2라디오	0.16	56.41	43.44	9,240분
	제3라디오	4.9	71.87	23.24	8,820분

FM음악방송					
구 분	국악(%)	서양(%)	가요(%)	팝(%)	합계(주간)
제1FM (고전음악)	8.3	91.7	-	-	10,080분
제2FM (대중음악)	-	-	75	25	10,080분

국 책 방 송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한민족방송		11.36	63.63	25.01	8,400분
KBS World Radio		19.9	42.9	37.2	21,630분

※ 한민족방송은 제1방송 기준

DMB					
구 분		보도(%)	교양(%)	오락(%)	합계(주간)
U-KBS 스타★(V)		30.8	58.7	10.5	9,817분
U-KBS 하트♥(V)		6.4	36.1	57.5	8,564분
U-KBS 뮤직♫(A)		0.26	2.97	96.77	10,080분
U-KBS 클로버♣(D)		-	-	-	10,080분

국제 위성방송					
구분		보도(%)	오락(%)	교양(%)	합계(주간)
KBS WORLD		0.9	94.6	4.5	10,080분
KBS KOREA		40.0	9.4	50.6	10,080분

방송시설

(2025. 6. 30. 기준)

□ 방송국

- 본사 : 1개소(경인센터 별도)
- 지역 : 18개소(방송총국 9, 지역국 9)

□ 주요시설

○ 본사

구분	시설 개요
TV	TV부조 14(스튜디오 22), 뉴스부조 4(스튜디오 4), 중계부조 2(스튜디오 1), 제작편집실 18(NPS마스터링 6), 주조정실 4(경인포함), 색보정실 4, SMR 8, 입체음향실 1, 믹스다운실 2, KBS홀 1, KBS아트홀 1, 기타 12
라디오	녹음스튜디오 26, 뉴스스튜디오 1, 생방송스튜디오 10, 주조정실 1, KBS아트홀 1, 기타 6
DMB/IP	주조정실 1

○ 전국

구분		방송국	기간국	간이시설	계
방송국		19	-	-	19
송출	TV/FM/DMB	-	34	307	341
	중·단파	-	26	-	26
합계		19	60	307	386

KBS 주요 계열사 현황

□ 자회사

(2025. 4월 기준)

회사명	대 표	설립일	자본금	지분율	주요 사업	임직원수
KBS비즈니스	장한식	1989. 4. 1.	9억	KBS 100%	· KBS 시설관리 위탁 스포츠월드 운영	300
KBS미디어	전진학	1991. 9. 1.	36.8억	KBS 86.2% e-KBS 10.8%	· 국내외 KBS 콘텐츠유통	227
KBS아트비전	김종욱	1991.10. 1.	5.2억	KBS 100%	· KBS 방송미술 위탁	182
KBS시큐리티	김승욱	2011. 3. 1.	15억	KBS 100%	· KBS 경비업무 위탁	151
e-KBS	조성원	2000.12.27.	416.4억	KBS 100%	· 손자회사 출자	2
KGCS문화산업 전문회사	최용훈	2008. 4. 7.	100억	KBS 40% 미디어 35% KBSN 25%	· 콘텐츠 투자 펀드	1

□ 손자회사

회사명	대 표	설립일	자본금	지분율	주요 사업	임직원수
KBS N	이강덕	2001. 3. 8.	164억	e-KBS 74.6% 미디어외 17.4% 기타 8.0%	· 방송채널 사용사업	176
몬스터유니온	지병현	2016. 6. 9.	25.7억	e-KBS 70.8% 미디어 19.5% KBSN 9.7%	· 드라마 제작	20
KBS미디어텍	신상식	2009. 9. 1.	8억	e-KBS 100%	· KBS 특수영상, 사운드디자인 위탁	52
KBS America	장성주	2004. 7.15.	270만\$	미디어 100%	· 미주지역 채널사업	19
KBS Japan	김 충	2005.10.19.	215억¥	미디어 100%	· 일본지역 채널사업	23
방송차량서비스	황의천	2004. 7. 1.	1억	비즈니스 100%	· KBS 차량업무 위탁	197
KBS콘텐츠SPC	최용훈	2015. 5.18.	0.1억	e-KBS 100%	· 콘텐츠 투자 펀드	1
KBS문화사업 파트너스	김현기	2018. 8. 1.	0.1억	e-KBS 100%	· 문화사업	1